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2, Vol. 20, No. 1, 141-157

가출청소년의 가출 결정 과정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서 선 진 송 원 영 †
건양대학교

본 연구는 가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이중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 나타난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번 이상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가출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자료는 지속적인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되었고, 여기서 가출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를 특징짓는 두 가지 요소로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의 정도와 부모와/혹은 자녀가 보이는 행동 패턴(행동지향성)이 추출되었다. 이 두 요소를 축으로 하여 가출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유형은 변화부적응형, 기대불일치형, 책임전가형, 훈육-규율 거부형, 소극적 부모 역할형, 자유추구형, 갈등방임형이다.

* 주제어: 가출청소년, 가출 결정, 가출 유형,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유형, 질적 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전화: 041- 730-5414, 팩스: 041-736-5765, Email: 1058@paran.com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와 더불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고 있지만 가정의 해체와 청소년 가출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는 10.9%였던 가출경험이 2007년에는 12.1%, 2008년에는 12.8%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家出)은 말 그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부모의 허락 없이 집 밖에서 24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용교, 1993),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서 실시한 “2007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들이 가출을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이 부모와의 갈등이었고,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등의 순서였다. 반면에 위기청소년의 경우 가출충동의 가장 큰 이유는 놀고 싶어서라는 답변이었고, 그 뒤를 이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부모와의 갈등 등의 순서였다. 이용교, 남미애, 안경순(2006)이 행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연구"에서 역시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원인인 심리적 요인 역시 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변인임을 감안하면 가족적 요인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데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주는 가족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안정도, 부모-자녀관계,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가출은 가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행위이며 보호자, 주로 부모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편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간다. 김경희와 김지수(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25%가 4일 이내에 귀가하였고, 50%가 12일 이내에, 75%가 90일 이내에 귀가하였다. 이는 가출이라는 행동이 단번에 영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였다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가출 청소년들의 대답 중에 안타까운 것은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귀가를 원하는 청소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그 이유가 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청소년)쉼터의 실태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2004년 이후로 가출 이후의 귀가 의사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까봐 걱정되어서(53.5%)’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꾸중이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도 많았다(10%). 갈 집이 없다는 대답은 7.5%에 불과했는데, 이는 분명히 가족이 있고 마음을 먹으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가족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겪거나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가출이 길어진다는 설명인 것이다. 가출에 대한 인식에서 ‘가출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던 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심지어 ‘가출은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23.4%)’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출을 하고 그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처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그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식 중 하나는 이를 비슷한 유형으로 나누어 공통점을 찾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Lofland & Lofland, 1995; Holmberg, 1990).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현상 또는 관심이 있는 현상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곤 한다. 가출과 관련

하여서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가출청소년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연구자들은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가출의 동기, 가출의 심각성, 가출 후의 생활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법이며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은 Homer(1973)의 분류법으로 그는 가출의 동기에 따라 학대, 폭력, 빈곤에서 등으로부터의 도피를 이유로 살기 위해 나가는 탈출형 가출과 외부의 유희를 좇아 나가는 추구형 가출로 나누었다. 이와 유사하게 Greene과 Esselstyn(1972)은 여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문제가정에서 삶을 찾아 가출을 하는 떠도는(rootless) 가출소녀,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 가출하는 불안한(anxious) 가출소녀, 의붓아버지 등 가족 내에서의 성적인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공포에 떠는(terrified) 가출소녀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홍봉선, 남미애(2007)가 시위성, 유희성, 방랑성, 추방형, 생존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시위성 가출은 요구를 들어주거나 의도를 관철시키는 등 가족이나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출이고, 유희성 가출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의한 가출로 부모의 간섭 없이 놀다 되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저지르는 말하며, 방랑성 가출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 떠돌면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진 경우이다. 추방형 가출은 가족들의 무관심, 방임 등에 의해 떠밀려 나온 경우이고, 생존성 가출은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출의 심각성에 따른 분류는 Stierlin(1976)의 분류가 대표적인데, 그는 가족과의 심리적 결속이 강해서 몇 시간 내에 귀가하는 미수성(abortive), 정신장애로 인한 분열성(lonely schizoid), 충동적으로 가출하는 우발성(casual), 가족 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기성(crisis)으로 분류하였다. 송원영(2008)은 MMPI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분류하였다. 일반집단은 특별한 병리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인 반면 반사회적 집단은 환경과 맞서 싸우며 주장성을 유지하지만 비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집단이고, 혼란된 집단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집단이었다.

가출 후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류로는 미국의 전국 가출 청소년 서비스 네트워크(1985)의 분류가 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runaway), 버려진 청소년(throwaway),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 보호체계 청소년(system youth)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가출 청소년은 18세 이하로 24시간 이상 허락없이 집을 떠난 청소년을 말하고, 버려진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거나 가족에서 내쳐진 청소년, 집을 떠나 살기 시작했으나 부모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청소년들로 자살시도나 약물 사용 등의 고위험 행동들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길거리 청소년은 이미 노숙을 하기 시작하였고 생존을 위해 비행이나 성매매 등의 여러 가지 생존수단을 개발시킨 경우가 많다. 보호체계 청소년은 가족갈등이나 방임, 학대로 인해 한 번 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림청소년쉼터(2003)에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리청소년인 갈등형, 집과 약간 교류하고 학교에서 나와서 지내고 있는 전환형, 집과 완전히 단절되고 버려진 방임형으로 구분한 이후 이용교, 홍봉선, 윤현영(2005)이 가족과의 연결, 보호시설 이용동기, 청소년의 안정성과 사회적응 능력의 기준을 추가하여 노숙형, 거부형, 탐색형, 전환형, 안전형, 치료형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형을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본 연구는 흔하지 않은 편이다. 부모와 자녀를 따로따로 나누어 분류한 Miller, Miller, Hoffman 및 Duggan(1980)은 부모요인에 희생자(victims), 추방자(exiles), 반항자(rebels), 자녀요인에 도망자(fugitives), 피난자(refugee), 이민자(immigrants)로 각각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시도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2006)이 갈등가정 청소년과 해체가정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가족의 상태와 복귀 가능성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유형들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 가출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귀가하는 가출청소년의 가정내 재적응을 위한 개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전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2가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자녀관계 양상을 특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형태의 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네 곳(특별시 또는 광역시 소재)에 의뢰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최소 2회 이상의 가출 경험이 있으면서 해당기관에서 실시한 초기면담에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청소년들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에 한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6명 (남 13, 여 13)으로 나이는 15~20세 사이(평균 17.8세)였다. 자료수집 당시, 8명의 청소년이 중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었고, 1명은 중졸 후 학업을 포기하였으며 나머지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자퇴하였다. 가출횟수는 최소 2회에서 20회 이상까지 개인차가 컸으며, 상당수가 자신이 가출한 총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가출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가족해체의 위험성이 높은 가정이나 해체를 경험한 가족 출신으로, 대다수가 중·하위의 경제력 수준을 나타내며 이 중 38%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였다. 대상자별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들이 가출결정과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개별면접의 형태로 청소년 1인당 1~2회가 실시되었는데, 이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확실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 소속기관의 담당교사가 기관 내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청소년상담 및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최소 2년 이상의 현장경력 소지자들로, 연구목적과 연구과정, 면담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면담기법과 관련된 사전 교육(연구자들이 직접 실시, 총 2회, 4시간)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제공한 면담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교사들은 다시 한 번 청소년들에게 면담의 목적과 면담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시행과 녹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면담을 시작하였다. 심층면담에는 가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과의 갈등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 (표 2 참조, 연구자들이 작성)을 사용하였다. 면담질문에 대한 청소년의 답변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용 질문(probe

표 1. 연구대상자 정보

연번	나이	성별	현소속	학력	가출 경험*	가족형태**	사회경제적배경
1	18	여	대안학교 A	고1 중퇴	20여회	이혼가정	중상
2	18	남	대안학교 A	고1 중퇴	10여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3	17	남	대안학교 A	고1 재학	2회		기초생활수급자
4	17	여	대안학교 A	고1 재학	5~7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5	18	남	대안학교 A	고2 재학	3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6	19	남	대안학교 A	중2 중퇴	10여회		중상
7	18	여	대안학교 A	고1 중퇴	8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8	19	여	대안학교 A	고1 중퇴	8회	이혼가정	중상
9	17	여	대안학교 B	중2 중퇴	5회		차상위계층
10	17	여	대안학교 B	중2 중퇴	2회	이혼가정	중상
11	17	여	청소년쉼터	고1 중퇴	3회	이혼가정	중상
12	16	여	청소년쉼터	중3 재학	5회	재혼가정	중
13	19	여	청소년쉼터	중2 중퇴	10여회		하
14	20	남	청소년쉼터	고1 중퇴	10여회	이혼가정	중
15	15	여	청소년쉼터	중2 중퇴	2회		중
16	19	남	청소년쉼터	중 중퇴	6회		하
17	20	남	청소년쉼터	중졸	10여회	조손가정	하
18	19	여	청소년쉼터	고1 중퇴	8회	이혼가정	하
19	19	남	청소년쉼터	고1 중퇴	10여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20	19	여	청소년쉼터	중1 중퇴	2회	이혼가정	기초생활수급자
21	18	남	청소년쉼터	고1 중퇴	8회	이혼가정	중
22	15	여	청소년상담센터	중2 재학	8회	이혼가정	하
23	18	남	청소년상담센터	고1 중퇴	5회		차상위계층
24	19	남	청소년상담센터	중졸	5~7회	이혼가정	복지시설 생활
25	17	남	청소년상담센터	중 중퇴	4~5회	이혼가정	중하
26	16	남	청소년상담센터	중3 재학	6~8회		차상위계층

* 가출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략적인 수치를 기록함
**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지함

questions, 예: “첫 가출 후 길거리에서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 ○○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을 추가하였다. 면담이 지속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했으며, 면담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참여자는 없었다. 총 면담횟수는 30회이며 각 45~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47분이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은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과 전화, 이메일, 면대면 회의 등을 통해 면담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면담내용 및 추가 면담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동시녹음 되었으며 면담 후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혹은 학부생 6인에 의해 전사되었다. 연구자들은 전사를 담당한 학생들에게도 전사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일관성 있게 전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사 시 질문이 있으면 연구자와 상의하여 해결하였다. 전사 자료는 흔글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 당 37줄이 들어가도록 하여 A4 용지로 총 489장이었다.

표 2. 면담질문의 구성 및 내용

▪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 예) 처음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장 최근에 가출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 예) 첫 가출을 결심할 즈음에 부모님은 ○○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다고 생각하나요?
▪ 가출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 예) 부모님이 ○○이가 집을 나간 것을 아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가출 이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나와 가족은 서로를 어떻게 대했나요?
▪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성찰을 묻는 질문 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혹시 그 때와 다른 상황이었더라도 가출을 했었을 것 같나요? 어떤 상황이었다면 가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지에 이야기해보아요.

자료 분석 및 신뢰타당도 검증

청소년들의 가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을 특징짓는 요인과 이에 근거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Strauss & Corbin, 1998)이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청소년 가출 및 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1인과 청소년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이 완성된 전사본을 각기 따로 읽으며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는 개방형 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별로 코드북(codebook)을 만들어 코드와 해당 코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서로의 코드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할 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코드북을 수정하였다(Saldaña, 2009). 수정된 코드북은 연구자들이 코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원자료는 새로운 코드가 등장하거나 의미상 구분이 필요하거나 정교화가 있어야 할 때 마다 다시 코드를 부여하였다. 연구자들은 개정된 코드북(총 7회 개정함)을 기초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코드를 패턴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쳐 총 123개의 코드, 2가지의 중심축 범주와 8개 하위패턴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타당도(trustworthiness)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적연구의 검증법이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사 후 면담 참여자 (청소년 및 담당교사)가 전사된 내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연구참여자 재확인(member check)이 실시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또한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드러나는 부모-자녀관계 양상 및 유형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가출청소년 분야 현장전문가 4명(청소년 쉼터 실장급 2인, 청소년상담센터 팀장급 1인, 대안학교 교사 1인)과 총 5차에 걸친 만남을 통해 분석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해가는 동료검토법을 시행하였다. 특히 현장전문가들과의 토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도출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들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징이 현장전문가들이 언급한 사례와 비교, 특징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였다.

결 과

이 연구에 참여한 가출청소년들의 심층면담에서 드러난 가출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모-자녀관계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진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발견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양상을 특징짓는 요인

공통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은 이들의 가출 결정을 이끌었던 주요한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면서 가출의 결정은 부모와 자신과의 갈등에서 기반 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이 언급하는 갈등 유발 사건의 모양새는 다양했지만, 갈등에 반응하는 사이에서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역기능적으로 이어지거나 기존의 역기능적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토의하며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출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이 부모-자녀 유대정도와 행동양상이다. 갈등 상황에서 가출청소년들 혹은 부모가 상대방에게 보여준 행동의 양상은 가출을 감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지만, 부모-자녀 사이에 형성되었던 유대관계의 정도는 가출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출 결정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특징짓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부모-자녀의 행동패턴

부모-자녀(청소년)의 행동패턴은 가출한 청소년과 그 부모가 보이는 행동양상으로 자율지향성과 규제지향성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체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율지향성은 부모와/혹은 자녀가 남의 구속이나 지배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성향을 의미하고, 규제지향성은 규칙이나 규제를 강조하거나 규칙이나 규제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성향을 의미하였다. 부모와/혹은 자녀가 보이는 행동의 성향은 청소년이나 부모가 나누는 대화나 그들이 묘사하는 행동을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었다.

부모- 자녀 유대관계

부모-자녀(청소년) 유대관계는 둘 사이 관계의 실체를 외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는데, 유대관계의 정도가 청소년 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는 연속체 상에서 강약으로 그 정도를 구분하는데, 강한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를 가진 경우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이러한 감정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경우는 부모-자녀 한 쪽 혹은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아예 무관심함을 표출하였다. 강한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가출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자녀의 가출을 전후로 자녀에 대한 자신의 태도 혹은/그리고 가정의 사회-심리적 환경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자녀의 가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가출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면적인 변화에 안주하거나 궁극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미흡하였다. 이에 반하여 약한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보이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가출이 있은 후에도 가정 내 역학구도나 환경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자녀의 가출을 비난하고 가출을 감행한 자녀에게만 그 책임을 돌렸다. 부모-자녀의 유대관계 정도 역시 부모와 청소년이 보이는 행동적 특성이나 관계적 인식 등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은 표면적이지만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지표

표 3. 유형별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유 형	부모-자녀 유대관계	행동패턴	
		행동지향성	갈등주도의 주체
가. 변화부적응형	강함	부모의 규제 강함	자녀
나. 소극적 부모역할형		부모의 규제 약함	부모
다. 훈육-규율 거부형		자녀의 자율성이 강함	자녀
라. 기대불일치형	약함	부모의 규제 매우 강함	부모
마. 책임전가형		부모의 규제 강함	부모
바. 자유추구형		자녀의 자율성 매우 강함	자녀
사. 갈등방임형		부모의 규제 없음/무관심	부모

가 되었다.

부모-자녀관계 유형

가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와 행동패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총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유형별 특성은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족유형의 특성은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강약 정도와 이들이 보이는 행동패턴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유대관계가 강하면서 부모의 규제가 강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자녀관계 내 부적응 행동의 주체가 될 때 변화부적응형이 되고, 유대관계가 강하나 부모가 자녀의 자율을 강화/방임할 경우 그 주체가 부모이면 소극적 부모역할형, 만약 갈등행동의 주체가 자녀이면 훈육-규율거부형이 된다.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약한 편이면서 부모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는 부모의 높은 기대를 자녀가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기대불일치형과 부모의 규제는 약하지만 가족 갈등의 원인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책임전가형의 가족유형이 출현하였다. 유대가 약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자율을 강화/방임할 경우는 자녀 주도의 자유추구형, 부모 주도의 갈등방임형이 나타난다. 이상의 유형을 가족관계의 양상을 결정짓는 유대관계의 정도의 행동지향성 정도를 고려하여 배치해보면 [그림 1]과 같다.

변화부적응형

변화부적응형은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강하면서 규제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가정에 큰 사건(예: 가장의 실직, 부모의 이혼)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이 이러한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가정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규율 혹은 부모의 기대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갑작스럽게 큰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잘 유지되던 관계가 갑자기 소원해지고 규율은 계속 지속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자녀는 가출을 감행하였다. 가정에 위협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가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속성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재된 갈등이 표면화 될 때 변화부적응 유형의 가출이 출현할 수 있었다. 자녀가 변화 부적응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 보통 부모는 자녀의 귀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며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어… 중학교 때 그.. 엄마하구요. 좀 그, 아빠 때문에요. 그… 무슨 일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저…너무 충격 받아가지고요. 가출을 했어요, 그 때."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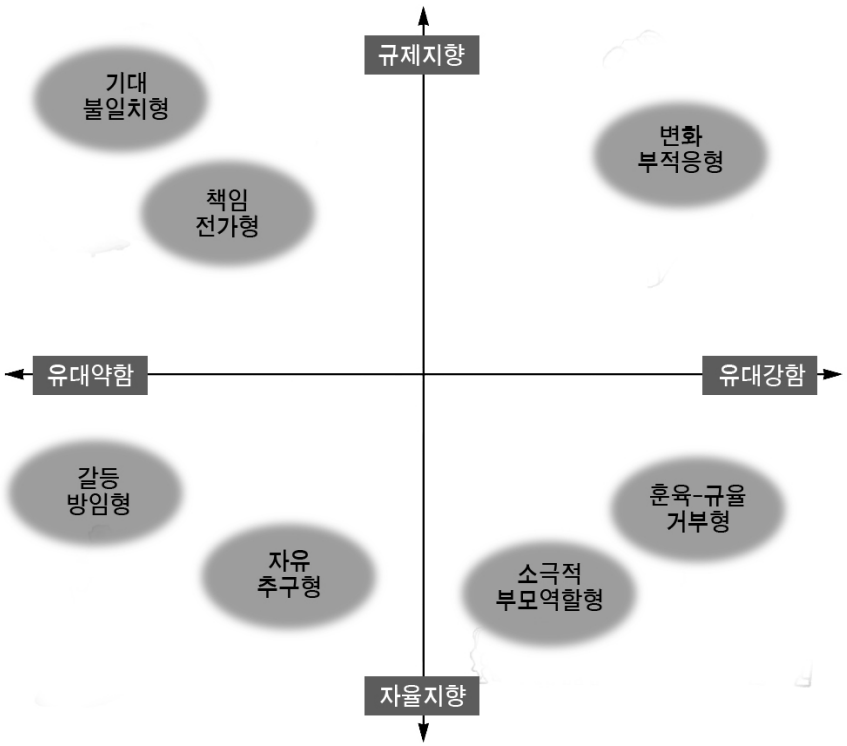


그림 1.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 유형 분류

넌5, 남, 18세, 고2 재학 중)

"중학교 다닐 땐데, 우리가 사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빠하시는 일이 많이 어려워져서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언니랑 같이 방을 쓰게 되고. 동갑짜리 사촌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나한테 다 양보하라고 하고. 엄마 아빠도 많이 싸우시구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밖으로 돌았죠.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집에 안 들어 가고. (중략) 아빠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는데.. 무시했죠. 엄마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집에 들어오라고 울면서..."(청소년4, 여, 17세, 고1 재학 중)

소극적 부모 역할형

부모의 소극적 역할형은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가 강력하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갈등이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아버지 혹은/그리고 어머니(대개는 부모 중 한편에게 더 강한 유대를 느끼고 있음)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유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보통 청소년이 강한 유대를 느끼고 있는 부모 중 1인은 다른 부모 혹은 다른 가족 성원(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큰 자녀)에 비해 가족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무력하였다. 가출청소년은 보통 권위를 가진 부모나 다른 가족 성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갔지만 비교적 유대가 강한 부모와는 연락을 유지하며 상황을 살폈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 한쪽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가 집중되고 그 부모의 기

대가 자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뒤에서 설명할 기대불일치 유형과 중복된 이유로 가출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할머니랑 저랑 싸우면 제가 엄마에게 꼭 말하거든요. 짜증나서 못 견디겠다고, 나가고 싶다고. 그럼 엄마가 참으라고 그래요. 할머니는 병이 있다고 근데 너무 짜증나서 싫다고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도 속상하다고."(청소년11, 여, 17세, 고1 중퇴)

"오토바이 키박스 뜯어서 탔는데 그게 경찰한테 걸려서 집에 들어가기가 좀 무서웠죠. (중략) 제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평소에 (형이 제가 사고 친다고) 못나가게 하니까 제가 몰래 나가고 또 걸리면 끌려가서 또 맞고. (중략) 형 때문에 힘들다고 부모님께 말해도 형한테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요."(청소년19, 남, 19세, 고1 중퇴)

훈육-규율거부형

훈육-규율거부형은 부모가 제시하는 규율이나 훈육(양육의 방식)에 대해 거부의사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의 유형이었다. 훈육-규율거부형에서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자녀가 부모와의 두드러진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모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규율이나 훈육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유형의 부모-자녀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등 부모로서의 행동은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부모가 제시하는 훈육의 방식이나 규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이나 선택에는 관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부모의 개입이 있으면 이를 참지 못하고 가출을 감행하고 귀가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 하였다.

"그냥 저는 집 자체가 싫어요. 그냥 (식구들이랑) 다 친한데도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중략)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어요. 근데 밤에 못나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가출하게 됐어요."(청소년15, 여, 15세, 중2 중퇴)

"여름? 가을? 으흠...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이런 걸걸요. 방을 어지럽혔다거나 아니면 뭘 시킨 걸 안 했다든가. 뭐 집안 청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그런 것 시킨 걸 안…못했다거나 자잘한 말싸움을 하다가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짐퍼랑요,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랑, 그런 거, 어디 가서 계속 걸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청소년7, 여, 18, 고1 중퇴)

기대불일치형

기대불일치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대하는 바가 상반되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자녀가 가출을 하는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는 엄격하고 자녀가 맡은 바 책임을 잘하고 부모의 특별한 보호 없이도 스스로 공부나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며 부드럽고 자상한 양육형태를 갈구하였다. 자녀의 이러한 요구는 부모의 기대와 충돌하게 되고, 대개 자녀는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쌓이게 되거나 갈등이 극대화 되는 어떤 사건 (예: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 내 폭력사태 등에 개입)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실행하였다.

보통 기대불일치형에서 부모는 자녀가 가출을 한 후에도 자녀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녀가 가출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언어폭력 혹은/그리고 신체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녀는 가출 이후에도 부모가 자신이 가출하게

된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므로 설사 가출 초기에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부모가 자신의 귀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기대불일치형 가족유형에 해당되었다.

"첫 번째로 가출했을 때 … (중략)… 뭐라고 했더라. '너 같은 게' , '네가 그따위로 !'이런 말… (중략)… 너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식." (청소년1, 여 18, 고1중퇴)

"중학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놀다보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빠가 성적표를 보고 막 뭐라고 하면서 절 때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때리지는 않았지만 성적 떨어진 것이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 안해서 그런건데.. 어떻게 눈을 피해서 집을 나왔는데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구요. 그래도 학교는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알았을 것 같은데도 찾지도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더 (집에) 못(돌아)가겠었어요." (청소년22, 여, 15세, 중2 재학 중)

"(부모님은 제가)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꼬았어요. 되게 천박한 직업이라고 해서. 그런 학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수치라고 했어요. 좀 그건 것도 이제 학교를 관두게 된 이유 중 하나 였어요." (청소년24, 남, 19세, 중졸)

"(아빠를 잘 피해 다녔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빠를 딱 마주친 것예요. 아빠가 절 보자마자 따귀를 때리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거예요. 저 같은 아들은 필요없다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입은 옷이 다 아빠가 사준거라면서. 안 벗으려니까 막 때려서 결국 제가 옷을 벗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데, 성질내면서 신경 끄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바지까지 다 벗고 그 후로 완전히 집을 나왔죠. 그 후로 아버지랑 인연 끊었어요. 가끔 누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청소년14, 남, 20, 고1 중퇴)

책임전가형

책임전가형은 부모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특정 자녀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생긴 변화의 책임자에 대한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함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자녀가 가출을 한 경우이다. 보통 가정 내 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폭력이나 이혼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여기는 부모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해자의 후손인 자녀를 가해자와 동일시하여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분노감을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이 자녀는 가정에서 설자리를 잃고 가정으로 부터 탈출하였다. 책임전가형은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니고 규제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 대해 지지가 되거나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듯하였다.

"제가 물병을 깨트려도요, 제가 싫어하는 말들, (예를 들어)아빠 닮았다고 하거나 전가(全家)핏줄이라거나" (청소년21, 남, 18, 고1 중퇴)

"어렸을 때는 다른 엄마들 하는 거보다 좀 심했는데, 약간만 심했는데. 그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다른 엄마들 그런 것처럼. 아빠랑 따로 살면서 아빠한테 했던 걸 저희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힘든 거 우리한테 푸는 거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요. 핑계야 좋지 머. 처음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불쌍하고 그랬는데 일 년 넘게 진행되면 저희도 화나잖아요. 자기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맨 날 우리한테 화내면 우리가 화 받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청소년21, 남, 18, 고1 중퇴)

자유추구형

자유추구형 가족은 자녀의 자율지향성 행동이 매

우 강력한 유형으로,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는 비교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였다. 자유추구형의 가출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자유를 찾아서 가출을 감행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정을 나가고 싶어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고자 하였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두드러지는 문제나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출을 결정하였다. 가출을 통해 가정 밖에서 자유를 누리다가도 가출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예: 배고픔, 경제적 문제,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면 일시적으로 귀가를 시도하거나 부모의 귀가 권유를 따랐다. 그러나 가정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냥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냥 제가 왜, 막 왜 내가 통금시간을 가져야 하지? 이러고 왜 나는 많이 못 놀지? 이러고. 그런 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계속 놀고 싶었어요." (청소년9, 여, 17세, 중2 중퇴)

갈등방임형

갈등방임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어난 갈등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 방임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소극적 역할 수행형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갈등방임형의 가정의 부모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시키려 하기 보다는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예: 친척집)에 일시적으로 청소년을 맡겨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형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숨도 못 쉬고 기절했다가도 계속 때려가지고 기절한 상태에서 때려가지고 또 깼는데 그 상태에서 또 때리고. 엄마는 형이 없을 때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형이) 와도 (형에게) 그냥 적당히 해라. 아예 때리지 말라고는 안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중략) 더 무섭고 또 계속 맞는 것이 싫어서 이제 밖이 더 편하고 조금 힘든 건 있어도 맞는 것보단 덜 힘들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나오게 된거죠." (청소년16, 남, 19세, 중학교 중퇴)

"할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성질내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고 할머니는 저만 보면 쌍년아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정말 인신공격을 막해요. 아빠는 아예 무관심으로 제쳐두고 동생은 차갑고 새엄마는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새엄마는 막 사람 취급도 안했어요. 고모들이 오면 고모들한테 막 친하게 하면 욕 들어야 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청소년12, 여, 16세 중3 재학 중)

"4살 때 이혼하셨는데 너 때문에 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가라 그러고. 친엄마가 좋으면 내 친엄마 찾아 가라고. 그래서 베란다 있거든요. 한겨울에 내복만 내복에다가 물을 가득 적셔요. 그 다음에 베란다 밖에 내보내는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새엄마는 야간에 노래방을 하시고 아빠는 계속 그 당시에 PC방에 계셨단 말이예요. 아빠는 모르고 엄만 일 나가니까 상관도 안하고. 남동생은 있는데 쉽게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청소년12, 여, 16세 중3 재학 중)

갈등방임형이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 서로에게 생긴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생활할 것을 기대하며 자녀가 가출한 것도 이러한 상황의 연장으로 받아드리기도 하였다. 가출한 자녀 역시 부모에게 생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출을 해서 생활하는

것의 불편함이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느꼈던 그것과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며 하루 빨리 성인이 되어 현재 미성년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였다.

"엄마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때 당시에는 엄마가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가고 외삼촌하고 싸워서 외가 쪽하고 그냥 관계를 끊는다는 문제로 대판 싸워서 (엄마와) 따로 지내고 저는 외가에서 지냈어요. 그 때 할머니 중풍 맞으시고 할아버지도 맨날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가출한 것도 모르셨어요. 엄마는 당연히 관심없죠. 저도 엄마 신경 안써요. 나 혼자 사는 거죠. 빨리 일자리 찾아서 혼자 살려구요. 이제 다행히 20살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청소년17, 남, 20세, 중졸)

논 의

청소년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가출의 유형은 부모-자녀(청소년) 유대관계의 정도와 부모-자녀(청소년)가 보이는 행동패턴의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변화부적응형, 기대불일치형, 책임전가형, 훈육-규율거부형, 소극적 부모역할형, 자유추구형, 갈등방임형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유대관계와 행동패턴(규제와 자율지향)의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양육의 세 가지 핵심요소가 연결(connectedness)과 심리적 자율성(psychological autonomy), 규제(regulation)라고 제시한 Barber(200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심리적 자율성과 규제를 각기 다른 차원으로 파악하고 자율성이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사생활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규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감독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독립적인 차원이 아닌 다소 상반되는 관계의 차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개의 축은 자율성과 규제라는 다소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Barber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Olson과 Gorall(2003) 역시 가족과 결혼에서의 순환모델(circumflex model)의 두 차원으로 응집력(cohesion)과 적응력(adaptability)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응집력은 가족 간의 친밀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을 말한다. 이는 너무 강해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속박 받는 느낌이 들지만 지나치게 유리되어도 애착이나 관계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의 연결 역시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적응력이란 다른 말로 융통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지도력,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에서의 변화의 양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패턴 즉 규제와 자율 지향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통제의 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적응력이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예외상황이나 변화를 언급하는 반면 행동패턴은 이 상황을 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청소년의 상황이나 주장을 융통성있게 받아들이고 규칙을 변화시키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또는 규제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가출청소년들이 경험했던 부모-자녀관계의 구체적인 유형은 7개로 구분되었는데, 규제지향적이며 유대가 강한 유형에는 변화부적응형, 규제지향적이며 유대가 약한 유형에는 책임전가형, 기대불일치형, 자율지향적이며 유대가 약한 유형에는 갈등방임형, 자유추구형, 고립형, 자율지향적이며 유대가 강한 유형에는 훈육-규율거부형, 소극적부모역할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이전의 연구가 청소년의 상황 또는 외적인 조건 및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청소년이 가출을 결정할 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및 의사결정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유형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과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훈육-규율거부형은 Dunford와 Brennan(1976)의 분류에서 규제거부형과 명칭이 비슷하며 부모의 규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규제거부형의 경우는 규제가 심한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띄지만 본 연구에서의 훈육-규율 거부형은 부모가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뒤늦게 규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반발하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유추구형의 경우는 Homer(1973)의 추구형과 정의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단 Homer의 경우는 추구형의 현상적인 측면을 언급함에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두 축을 통해 접근하므로 그 가족의 특성이 규제가 적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과 보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된다는 논리적인 고리를 제공해준다. 한편, 변화부적응형의 경우는 이전의 연구에서 유사한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부모와 유대가 깊고 규제도 많은 편이어서 좀처럼 가출하기 어렵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기대불일치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규제에 대한 내적인 불만이 쌓여있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족 내의 문제나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 의해 규제가 소홀해진 사이 가출을 감행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갖는 유형의 발견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에서야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장점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함된 유형은 기대불일치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는 많지 않으나 부모는 엄격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녀는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번번이 무시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는 유형이다. 이는 입시위주이며 무한경쟁의 청소년기를 보내야 하는 한국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의 진술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를 조절해나가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잘 해나가지 못하며, 더욱이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 중 하나는 가족의 해체나 학대보다 청소년의 귀가율을 더욱 낮추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것이다(김은영, 송민경, 2009). 가족해체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 집단보다 3.7배 더 많이 귀가하였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도 부모와의 갈등 집단보다 3.6배나 더 많이 귀가하였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집단보다 5.5배나 더 많이 귀가하였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도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발견되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대불일치형의 경우 적절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훈련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확인은 특정 가출청소년의 유형을 통해 청소년의 귀가 시 가정에서의 대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수를 차지하는 기대불일치형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한 부모의 규제를 낮추고 반면 약해져 있는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관계 형성적인 개입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유대관계는 강하지만 규제가 약한 소극적 부모역할형과 같은 경우는 부모의 행동이 좀 더 명확해지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모교육 형태의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와 유형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는 가족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기대불일치형과 같은 모습이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소극적 부모역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청소년의 가출결정 당시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청소년들에 대한 면담만으로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라본 제한된 시각에 그치기보다 가

족 구성원들 간의 역동이 보다 면밀히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부모의 면담을 포함, 분석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관계의 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실제 다수의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차원과 유형을 분류해 내었다는 것은 향후 청소년의 귀가 및 가족에의 재적응에 지속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김경희, 김지수 (2007). 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3), 338-348.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김지혜, 김기남, 박지영, 정경은, 조규필 (2006). **일시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 연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미국가출청소년서비스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 Inc.) (1985). *A profile of America's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he programs that help them.* Washington, DC: Author.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유해환경실태조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송원영 (2008). MMPI-A를 통한 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유형 및 적응상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429-443.

신림청소년쉼터 (2003). **우리세상.** 가출청소년의 거리청소년화, 쉼터5주년기념 워크샵

이용교 (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 남미애, 안경순 (2006). **청소년쉼터 역량강화사업 연구보고서.** 서울 : 청소년위원회

이용교, 홍봉선, 윤현영 (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홍봉선, 남미애 (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unford, F. W. Brennan, T. (1976). A Taxonomy of Runaway Youth. *Social Service Review 50*(3):457-470.

Greene, N. B., & Esselstyn, (1972). The Beyond Control Girl. *Juvenile Justice, 23,* 13-19.

Holmberg, B., (1990). *On the Rationale, Typology, and Methodology of Research and Scholarship: A Practitioner's Understanding of Epistemology.* Unpublished opinion paper, Hagen: Fern Universitat.

Homer, (1973). Community-based Resources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434-479.

Lofland, J., Lofland, L., H. (1995). *Typological Systems: Analyzing social settings*(3rd ed). Belmont, Cal.: Wadsworth.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3rd ed)(pp. 541-547). NY: Guilford.

Saldañ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housand Oaks, CA: Sage.

Stierlin, H. (1976). A Family perspective on adolescent runawa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9(1), 56-62.

Strauss, A. L., & Corbin, J. (1998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11.

KCI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2, Vol. 20, No. 1, 141-157

A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ypes of Runaway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Runaway from Home

Seonjin Seo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ypes of adolescents who escaped from home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runaway. Twenty six teenagers were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to share their personal experiences of getting away from home without their family's permission.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two factors of affecting their decision to run away from home were found: (1)bonding between parents and child and (2) their behavior patterns. There were 7 types of runaway adolescents'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the mix of these two factors: (1) lock-in, lock out, (2) refusal to discipline, (3) maladjustment to change, (4) passive parental involvement (5) neglectedness, (6) scapegoatism, and (7) discordance between expectations and realities. The meanings of how th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fluence runaway adolescents' determination to escape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runaway adolescents, qualitative research, family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types, determination factors